

祝 辞

ムン チャン ジン
文昌珍

CHA 医科大 保健福祉大学大学院長



第8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こころよりお祝いします。この行事を主催されたユニバーサル財団、この行事を企画し準備された実行委員会と事務局関係者の皆様
に感謝の言葉を申し述べます。私は大韓民国の保健福祉部で30年近く勤務した経験
を基にして大学院の学生たちを教えています。

韓国と日本の福祉環境を見ればいろいろな面で共通性が多くあります。人口学的
には高齢化と低出産、科学技術的には情報化、社会的には所得両極化と失業問題、
経済的には世界化(グローバル化)の波の中に同じように身を置いています。

最近の韓国の状況を申し上げれば、第一に、貧困と不平等を解消するための様々
な対策が登場しています。社会サービスが新しい政策課題として浮かび上がり社会的
企業も重要な政策関心事になっています。福祉領域も拡大され教育福祉、住宅福祉、
文化福祉の概念が登場しています。第二に、保健福祉の情報化です。福祉対象者の
資源状況に対する情報を電算化(データベース化)し中央政府において総合的に
管理するための機構が設置されました。福祉の死角地帯を解消し管理機関間の連携
協力を促進することが一次的な目的です。第三に、社会統合が強調されています。政
府では公正な社会をモットーに押したて、同伴成長(一緒に成長)を追求しています。
庶民と中産層を保護するための対策を講じ、大企業と中小企業の相生を強調していま
す。

私は、私たちがこれから追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福祉政策の方向を四つに整理して
みました。第一は、選別的福祉から包括的福祉にしてゆかねばなりません。脆弱階層と
貧困層を主とする福祉は過去の福祉です。福祉を先進化させ国民幸福を増進させる
ためには庶民と中産層までを合わせた広い福祉を追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二つ目
は、供給者中心から対象者中心の温かい福祉にしてゆかねばなりません。福祉対象
者は多様で欲求も個別的で、画一的、教科書的な福祉サービスからは対象者の需
要(ニーズ)をろくに充足さ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第三は、すべての公共政策が福祉
親和的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金融、租税、住宅、道路、建設などすべての公共
政策が国民福祉を最初に考える概念としてゆかねばなりません。開発計画が国民幸
福を増進させた時代は過ぎ去りました。第四は、民主的リーダーシップと民官パート
ナーシップをしてゆかねばなりません。福祉行政を効率的で透明に成し遂げねばなら
ず、

民間と公共部門が適切に役割分担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企業と地域社会住民が一緒に参与する時、真正な福祉を成就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のような点を勘案する時、このたびのシンポジウムの主題である“ニーズに応える社会起業とソーシャルワーク・アプローチ”は、韓日両国が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福祉の方向と大変に符合しており、時宜にも合った適切なテーマであると考えます。

今日、この行事がお互いの経験を分かち合い学び、有益な考えを整理する場所になることができればと思います。ひいては、両国の友誼を増進させ、福祉発展を図る貴重な機会になりますことを願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축사



문창진(文昌珍)
CHA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

제 8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유니벨 재단,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실행위원회와 사무국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에서 30 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복지환경을 보면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인구학적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 과학기술적으로는 정보화, 사회적으로는 소득양극화와 실업문제, 경제적으로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같이 몸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같은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한국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사회적 기업도 주요한 정책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영역도 확대되어 교육복지, 주택복지, 문화복지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의 정보화입니다. 복지대상자와 지원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기관간의 연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셋째, 사회통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모토로 내세우고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취약계층과 빈곤층 위주의 복지는 과거의 복지입니다. 복지를 선진화하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넓은 복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자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대상자는 다양하고 욕구도 개별적입니다. 획일적, 교과서적 복지서비스로는 대상자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셋째, 모든 공공정책이 복지친화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금융, 조세, 주택, 도로, 건설 등 모든 공공정책이 국민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개발정책이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넷째, 민주적인 리더십과 민관의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합니다. 기업과 지역사회주민이 같이 참여할 때 진정한 복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필요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접근방법’은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복지의 방향과 매우 부합하며 시의에도 맞는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며, 유익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두 나라의 우의를 증진시키고 복지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